

영광굴비 '소동'

굴비의 본고장 영광 범성포에 때 아닌 원산지 표시 비상이 걸렸다.

목포해경 광역수사팀은 지난 5월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 간 영광지역 굴비판매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착수, 원산지 미표시 46건을 적발해 영광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굴비판매 및 제조업체들은 국내산 조기를 구입한 뒤 열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됐을 뿐이라며 과잉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중간 제작과정을 마치고 판매할 때 부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목포해경측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냉동창고까지 열게 해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했다며, 일부 수협측에서 국내산 조기 채소가 넘쳐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해경측에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굴비특산물 사업단을 중심으로 중국산 조기 가 발붙이지 않도록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원산지 미표시 무더기 적발
상인들 "염장과정 누락일 뿐"
과잉단속 반발속 범성포 '시끌'

"금명간 목포해경을 방문해 이같은 우리의 자구노력을 설명하고 단속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목포해경 측은 "참조기를 굴비로 가공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만큼 중간 제작과정에서도 당연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절보에 의해 단속에 나섰으며 냉동창고를 강제로 열게 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 무차별하게 단속했다는 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막기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굴비가공업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자 명확한 지침을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의뢰해 지역 굴비제조 판매업체에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원산지 미표시 논란에 대해 영광군과 영광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광굴비 명성을 유지하는데 지역 기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목포=이성휴기자 lsh@

“철도공사 돈벌이만 밝히나”

무료개방 역 앞 주차장은 유료화...주민 불만 고조
나주 송월동 역사 위험한 급경사 계단 개선 외면

한국철도공사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외면한 채 나주역 앞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등 이용객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나주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구 나주역과 영산포역을 통합해 신축된 나주시 송월동 역사는 나주역 개찰구에서 플랫폼까지 지하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르내리는 계단이 45도 이상되는 급경사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측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64)는 “대도시 역에는 에스컬레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정작 노인 등 고령자들이 주 이용객인 나주역에는 이같은 편의시설이 없어 노약자들의 고충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KTX가 정차하는 호남선 11개역 가운데 5개역(서대전, 계룡역, 송정리역, 광주역, 목포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반면 나주를 비롯한 6개 정차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처럼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 확충은

도외시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일부터 수익사업을 위해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던 나주역 앞 주차장을 자회사인 (주)파발마 회사를 통해 유료화를 실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나주지역 주민들은 철도공사가 편의시설 개선은 뒷전인 채 수익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오후 1시에 나주역 앞 주차장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나주역 주차장에 대해 자회사인 (주)파발마 회사에 6개월간 223만원에 위탁임대계약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차 주차장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

강진청자 잘 팔린다

상반기 2억5천만원 매출

강진군 청자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강진청자사업소(소장 윤순화)는 올 상반기 판매액은 2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매 호조는 지난해 부산 에이블 정상회담 국빈선물 청자상감운화문합을 비롯한 모든 작품이 질적인 향상을 거두었고 예술작품과 생활자기를 병행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빈선물로 지정된 청자합은 전국에서 계속적인 주문량으로 그동안 휴일과 야간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재현에 전념하고 있으나 주문량에 비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청자사업소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진군 청자촌에서 개최되는 '제1회 남도공예문화축제기간동안 화목가마에서 생산된 청자합을 비롯한 작품 90여점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즉석 경매를 준비하고 있어 청자 애호가들의 구매의욕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자사업소 윤순화 소장은 “남도공예문화축제기간동안 고려청자의 예술적 가치를 잘 나타내는 신비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꼭 한번 찾아 줄 것”을 당부 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누가 누가 빨리 먹나” 지난 22·23일 이틀간 고창군 대산면 구 대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6회 고창 수박 축제에선 수박 빨리 먹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고창=김종원기자 jwkim@

화순군 예산 관리 '엉망'

상당금액 제 용도 사용 못하고 잔액·이월

화순군이 일부 예비비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바람에 상당 금액이 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거나,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일부 공사를 연말에 발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편성 및 관리가 주목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 군의회가 작성한 '2005 회계연도 화순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일회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관공통운영 예산 296억3천여만 원 가운데 지출액은 289억여 원에 그쳐 7억2천700여만 원이

사용되지 못했으며, 정보통신 예산도 17억2천500여만 원 중 15억1천700여만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2억여 원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일반민원 예산은 2억6천900여만 원 중 4천200여만 원이, 보건지소운영 예산은 4억2천800여만 원 가운데 1억480여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또 도암 정천리 간이상수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7천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키로 결정했으나 실제 지출액은 5천980여만 원에 불과, 결과적으로 1천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시설예산 29억3천여만 원 중 21억3천여만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중 민간용자금 예산은 4억6천500여만 원 중 9천만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3억7천500여만 원은 집행되지 못했다.

화순 군의회는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중앙·동북호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주민지원사업에서 야시3구 도로 보수공사나 내리3구 관정개발공사, 남계소하천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 발주됨으로써 사업이 지연,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겨울철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원어민과 함께 하니 영어가 '술술'

무안교육청, 캠프 개설
농촌학생 영어실력 늘어

무안교육청(교육장 권명)이 원어민 영어체험 캠프를 개설하는 등 농촌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무안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무안학생의 집에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중학생 영어체험 캠프를 열었다.

무안지역 중학생 3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명과 3명의 영어과 지도교사들이 팀을 이뤄 주제별·상황별 대화와 서바이벌 게임, 영어연극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원어민들과 속삭이를 하며 모든 일에서 영어만을 사용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상호간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영농회장 200여명 참여

사업활성화 추진대회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오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옥과, 오산, 결면 등 3개면 영농회장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영농회장 사업활성화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영농회장들은 “농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수신 증대 및 공제사업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는 3개항



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옥과농협은 지난달 19일 결면 농협에 대한 흡수 합병절차를 완료했다.

/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7월 26일

장운정

매일밤 8시 30분부터

동양

슈퍼관광

나이트클럽

광전미널뒤